



총리실이 수능 출제위원 자료까지 가져갔다는 인터뷰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

- 7.19일자 한겨레(가판) 「“총리실이 카르텔 조사한다고 수능 출제위원
자료까지 가져가”」 보도에 대한 정정 -

1. 기사 주요내용

- 성기선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“국무총리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·
검토위원 관련 자료까지 가져갔다” 고 인터뷰(7.19일자 한겨레(가판))

2. 정정내용

- 국무조정실이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
확인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한 사실은
있으나,
 - 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을 어기고 수능 출제·
검토위원 관련 자료까지 가져갔다는 성기선 前 교육과정평가원장의
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
 - 국무조정실은 수능 출제·검토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	책임자	과 장	민성호	(044-200-2742)
		담당자	사무관	손소정	(044-200-2743)